

제 1 권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

위트니스 리 &
워치만 니

제1권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

위트니스 리 & 위치만 니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모든 권리는 본사 소유입니다. 본 출판사의 명기된 허락 없이는 이 책의 어떤 부분도 복사, 녹음, 정보 저장 및 검색 체계를 포함하여 도안, 전자, 기계상의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 재생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무료 배포를 위한 초판 1쇄 / 2004년 3월 25일

ISBN 89-8478-205-X 04230

무료 배포처

레마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37-1

Originally Published by
Living Stream Ministry, Anaheim, California U. S. A.
Korean Copyright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목 차

서문 · 5

제1장 인생의비밀 · 7

제2장 구원의 확신, 보장, 기쁨 · 11

제3장 그리스도의 보혈 · 21

제4장 주님의 이름을 부름 · 31

제5장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열쇠—사람의 영 · 37

주님의 두 종에 관하여 · 47

서 문

총 다섯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은 인생의 비밀을 상세히 다루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가 되는지를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네 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 보장, 기쁨, 2) 우리를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초기의 체험과 계속되는 체험, 3)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매일 그리스도를 누림, 4)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열쇠—사람의 영.

이 책의 내용은 위트니스 리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며, 이전에 〈인생의 비밀〉, 〈구원의 확신, 보장, 기쁨〉,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열쇠—사람의 영〉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이미 출판되었습니다.

제 1 장 인생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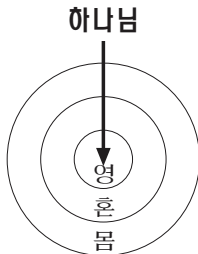
여러분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비밀을 열어줄 여섯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갈망하십니다(롬 8:29).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6). 장갑이 손을 담기 위해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고후 4:7).

2.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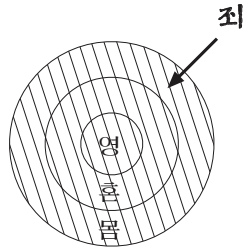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롬 9:21-24). 이 그릇은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살전 5:23). 몸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사물들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며, 심리적인 기관인 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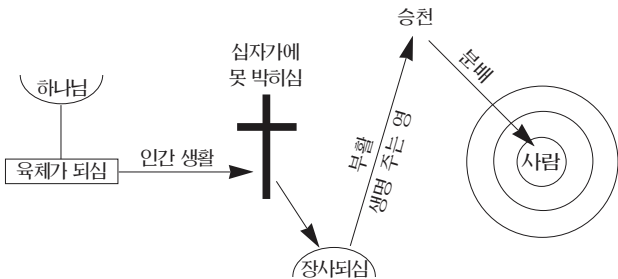
심리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을 접촉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인 영은 하나님 자신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요 4:24). 사람은 다만 위에 음식을 담거나 생각에 지식을 담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고, 영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엡 5:18).

3. 사람의 타락

그러나 사람이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죄가 먼저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롬 5:12). 죄는 사람의 영을 죽게 했고(엡 2:1),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했으며(골 1:21), 사람의 몸을 죄 많은 육체로 변질시켰습니다(창 6:3, 롬 6:12). 이와 같이, 죄는 사람의 세 부분을 모두 손상시켰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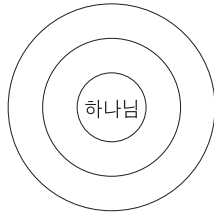
4.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그렇지만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요 1:1, 14).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속하셔서(엡 1:7), 사람의 죄를 가져가시고(요 1:29)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오셨습니다(엡 2:13).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고전 15:45하), 그분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생명을 사람의 영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 20:22, 3:6).

5. 사람의 거듭남

그리스도는 이미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영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벧전 1:3, 요 3:3). 사람은 이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행 20:21, 1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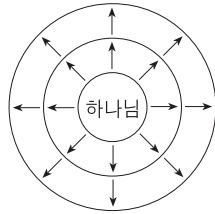


거듭나기 원한다면, 다만 열려 있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예수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당신을 저의 구원자와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생명으로 저를 채워 주십시오! 주 예수여,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저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6.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믿는 이는 거듭난 이후에 침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막 16:16). 그때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믿는 이의 영에서부터 혼 안으로 점차적으로 일생토록 확산하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변화라 불리는 이 과정은(롬 12:2)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빌 2:12). 믿는 이는 그의 갈망과 생각과 결정이 모두 그리스도의 갈망과 생각과 결정과 하나 될 때까지 주님께서 그의 혼 안으로 확장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서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믿는 이의 몸을 그분의 생명으로 완전히 적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화롭게 됨이라고 부릅니다(빌 3:21). 이렇게 해서 사람은 그의 각 부분이 비어 있거나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적셔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인 후에 믿는 이는 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육과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믿는 이들과 교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2 장 구원의 확신, 보장, 기별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최근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체험을 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체험이 참된 것인지 여러 번 의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았을 것입니다. 갓 구원받은 믿는 이가 구원에 대한 참된 확신을 견고한 기초로서 갖지 못한다면 생명이 자라거나 생명에 속한 더 깊은 것들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은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거나 ‘바라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하지 않고 ‘알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

구원의 확신을 얻는 첫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확실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히 6:18, 민 23:19).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시 119:89).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측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문서에 기록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딤후 3:16).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요 3:16, 14:6, 행 10:43, 16:31).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롬 10:9-13).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심

우리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동일한 것을 말하는 한 증인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밖에서 말한 것을 성령은 안에서 확증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도 때때로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우리의 영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종의 내적인 증거, 곧 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간단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크고 담대하게 외쳐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거짓말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도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거임

구원의 확신을 얻는 셋째 수단은 그리스도 안의 다른 형제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의심할 여지없이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일종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믿는 이들과 교통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다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구원받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랑은 이 시대의 값싸고 이기적인 ‘사랑’을 초월합니다. 이 사랑은 편협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찾고 있는 참된 하나와 조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 아들일 때 그러한 하나와 조화를 얻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와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세 가지 증거로 우리는 자신이 참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보장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은 구원받은 것을 안다. 그런데 내가 내일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일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은 더 이상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보장의 문제입니다.

은행에 수십억 원을 저축해 놓은 사람은 그 돈이 자신의 소유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계속 금고문을 열어 두고 닫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자 친구에게는 그의 재산의 ‘보장’에 관해 심각

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알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까? 오늘 얻은 것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무릇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전 3:14)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이 구원을 뒤집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심지어 예정(표시)하셨습니다(엡 1:4-5).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롬 8:29-30).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구원 안에 계속 두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표시하시고, 구원 안으로 부르신 후에 우리를 포기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함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건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요일 4:10).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렘 31:3).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 영원 과거부터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딤후 1:9).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하십니다(요 13:1). 우리 편 의 죄도 실패도 약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 8:35-39).

하나님은 의로우심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을 뿐 아니

라 더욱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시 89:14).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그분의 보좌는 기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의 의와 연관된다면, 이 구원은 참으로 매우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붉은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차를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3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3만원의 과태료는 의로운 처벌이고, 이 나라의 법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여러분의 죄를 눈감아 주어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한다면 그 판사는 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판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판사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던 문제는 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법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롬 6:23, 겔 18:4).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눈감아 주시고, 법의 심판을 잊어버리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바로 그분의 보좌는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법에 따라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직접 그 죄의 빚을 갚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천 년 전에,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대속의 죽음을 성취하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하시고 기쁘게 받으셨으며,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빚은 의롭게 청산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구원을 도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빛을 갠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했던 그 의가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 의는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큰 보장을 줍니까! 심지어 세상의 판사도 동일한 과태료를 두 번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모든 공의와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워치만 니는 이러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 죄 사함을 이루셔서
나의 모든 죄의 빛을 갠시키고
나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모두 요구하지 않으시니
나의 참된 구원의 보장, 그분의 아들에게 먼저 요구했으니
나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으시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롬 1:16-17, 3:25-26).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다만 어떤 것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 1:12-13).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서 다시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아들 안에 심은 사람의 생명은 결코 다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약하고 심지어 징계가 필요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약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받은 생명은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결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일단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결코 그 출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8-29)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주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견고히 붙잡고 있는 두 개의 강한 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려고 애쓸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할 뿐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뀌지 않으심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오래 전에 구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자주 변합니다. 어느 날은 뜨거웠다가 다음날에는 냉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뿌리박고 근거를 둡니다(말 3:6). 야고보서 1장 17절은 “빛들의 아버지 ...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하며,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 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면 분명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를 붙들어 지키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주 불의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결코’, 즉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분의 부름, 사랑, 은혜, 의, 생명, 힘, 변함없는 신실함, 약속 등을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보증과 보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구원의 기쁨

우리는 구원의 확신,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또 구원의 보장, 즉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족합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만족합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누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수십억 원을 예금한 우리의 친구는 자신이 부자라는 확신이 있고 자신이 예금한 돈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 원 한 장도 쓰지 않고 거지처럼 살며 만족해한다면 우리는 그가 자신의 부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는 부자이지만, 실제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엡 3:8)을 거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 아니라 그분을 누리는 것이며, 심지어 극도로 누리는 것입니다(요 10:10, 빌 4:4).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벧전 1:8).

그러나 거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도 자주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

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을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림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첫째 원인은 죄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사 59:1-2).

둘째 원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엡 4:30). 우리는 구원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십니다(고전 6:17, 롬 8:9, 11, 16).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은 어떤 '능력'이나 '사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고전 15:45, 고후 3:17, 13:5). 모든 살아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느낌과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반대로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성령과 연결된 우리의 영 또한 근심하게 되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을 유지함

우리의 구원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부드러운 꽃과 같이 미풍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반드시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죄들을 자백할 수 있습니다(요일 1:7, 9). 우리가 주님께 죄들을 자백할 때, 그분의 피는 우리를 씻으며 우리와 그분과의 교통을 회복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렘 15:16)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끓어오르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굶주린 사람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껏 즐겨야 합니다(마 4:4).

셋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주님께 무언가를 말할 후에 자주 깊은 곳에서 기쁨과 신선함을 느낍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늘 하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에게 해방과 기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누리는 다른 믿는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에 대해 말할 때 체험하는 기쁨은 사람의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통은 의무가 아니라 누림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보장과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3장 그리스도의 보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공기, 음식, 의복, 주거 등과 같은 어떤 기본적인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적당량의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게 되거나 적어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타락한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세 가지 기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전히 타락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세 인격, 곧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사탄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자주 분리된 느낌을 갖습니다. 자신 안에서는 자주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탄에게서 참소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됨, 죄책감, 사탄이 주는 참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됨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숨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누렸고 항상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그는 숨었습니다. 죄는 항상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죄를 범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들을 묵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짝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 1-2).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아, 무슨 일을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보다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게 된 사실을 더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들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남아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죄들이 떠나야만 합니다.

온 우주 안에서 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예배에 참석하고 참회해도, 더 잘 해보겠다고 약속을 해도, 깊이 뉘우치고 오래 기다려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죄들을 없애지 못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잘 설명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일부는 이집트인처럼 사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게 하셨을 때, “내가 너희 선한 행실을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도하거나 참회하거나 선하게 살기를 약속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요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출 12: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 안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지 결코 살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실 때 다만 넘어가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양은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님을 처음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가져갔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즉시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느낌이 없다거나 느낌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여러분이 아닙니다.) 피를 볼 때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 안에 있었고, 어린양의 피는 집 밖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피에 만족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강을 가졌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레 16:11-17). 다른 누구도 그 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활 후에 하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뿌리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히 9:12). 오늘날 하늘을 쳐다보고 그 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는 그곳에 있습니다. 피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말하고(히 12:24),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

족하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피를 볼 수는 없지만 그 피의 효능은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피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없애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느낌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저의 모든 죄들을 가져간 것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해 기뻐하신다면, 저 또한 기뻐합니다.”

양심에서의 죄책감

사람의 둘째 중요한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특별히 양심 안에 있는 무거운 죄책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죄책감은 사람에게 큰 문제입니다.

죄들은 한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은 우리의 양심에 있는 죄들의 자국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는 양심이 아주 조금 더럽혀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자국들이 쌓여 갑니다. 한 번도 닦지 않은 창문처럼 양심은 점점 어둡게 되고 결국 조금의 빛도 투과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세제나 화학 약품으로도 우리의 양심에서 죄 자국을 씻어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핵폭탄도 이 자국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양심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에서 모든 범죄의 자국을 깨끗하게 할 만큼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서 죄책감을 깨끗이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도에 불법 주차를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법을 어겼고, 둘째 정부에 내야 할 범칙금이 있고, 셋째 여러분에게 범칙금을 상기시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일푼이고 범칙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그 고지서를 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경찰이 고지서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의 그림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무언가를 빗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갚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심한 벌금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호주머니 속에 우리의 범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성가신 고지서가 있듯이, 우리의 양심에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죽음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죄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처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죄의 빚은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고지서 같은 범죄의 자국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기록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씻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이제 이 빚의 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고지서를 찢어서 버릴 수 있듯이, 우리의 양심의 모든 죄책감 또한 씻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내적으로 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단순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오늘 범한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제가 범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죄를 당신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의 보혈이 저의 양심에서 모든 범죄의 자국을

깨끗하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말합니다. 동에서 서까지 얼마나 먼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이 죄들을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옮기십니다. 죄들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양심 안에서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어느 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상기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잊으실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잊으셨다면 여러분 또한 그 죄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잊어버리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천 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피를 흘리셨고,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우리의 양심을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피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전능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루 중 어느 때든지, 양심에 죄책감이 느껴지면 즉시 보혈을 적용하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2).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탄이 주는 참소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피를 적용한 후에도 때때로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안 좋은 느낌이 계속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음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자백하고 피를 적용한 이후의 이 안 좋은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탄이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마귀' 인데, 성경에 쓰인 헬라이어 원문에 따르면 '참소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은 그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데 보냅니다. 이것이 그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일을 스스로 떠맡은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욥 1:1). 그러나 욥기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욥 1:9-11)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욥을 참소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뇌물을 쓰신 것이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영적인 영역에서 참소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3:1).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3절). 이것은 그의 가련하고 죄악 된 상태를 말해 줍니다. 우리의 가련한 상태는 얼마나 자주 사탄에게 우리를 참소할 기회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기도 함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참소보다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더 무능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모든 힘이 우리의 영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소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대적의 간교한 책략입니다. 결코 대적은 빨간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서는 “나는 마귀다! 지금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교활합니다. 사탄은 내적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심지어 그의 참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심에서의 하나님의 참된 빛 비춤과 사탄의 참소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이것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기에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공급을 주지만, 사탄의 참소는 우리의 힘을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로 폭로되고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공급과 격려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사탄의 정죄는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는 것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허함과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구체적인 반면, 사탄의 참소는 대체로(항상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일반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탄의 속임을 받아 자신이 아주 지쳐 있고 힘든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만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또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낙심이 되거나 막연히 하나님과 불편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명백한 죄의 근원이 없는 막연한 정죄의 느낌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거절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말할 때는 대부분 일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셋째로, 죄를 자백하고 피를 요구한 후에도 남아 있는 불안함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피를 적용한 후에 또다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피로써 즉시 만

족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듭해서 자백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잠언 27장 15절은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참소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고 성가시게 잔소리하는 아내와 같습니다. 사탄의 참소는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피로 깨끗하게 하신도록 요구할 때, 하나님은 즉시 만족하십니다. 이것 이상의 음성은 모두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의 어떤 불안함이 계속 우리를 잡아당긴다면, 우리는 즉시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소의 근원으로 돌이켜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나는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나는 이것을 거절한다! 사탄아, 지금 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아야 한다. 이 피가 너의 참소 하나하나에 답변할 것이다.”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피를 사용한다면, 사탄은 패배당하고 또한 자신이 패배한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이 피가 사탄을 패배시켰다는 우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때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벧전 5:8). 이러한 전쟁을 위해서는 합당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매일의 생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순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즉시 자백하고 주님의 효능 있는 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교통이 회복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매순간, 매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씻는 능력을 결코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피는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들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 우리는 범죄의 자국이 없는 양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의 양심에 죄의식이 없게 됩니다. 새로 닦은 창문처럼,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고 밝고 빛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 우리는 사탄이 주는 모든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그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의 모든 참소에 답변합니다. 이 피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면 사탄에게 결코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를 패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이 피에 의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장 7절).

제 4 장 주님의 이름을 부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르는 것이 일종의 기도이겠지만 단순히 기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르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외치다', '부르짖다' 를 의미하고, 헬라어로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를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부르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가 들을 수 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용히 할 수 있지만 부르는 것은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두 선지자들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분께 부르짖고 영적 호흡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애 3:55-56). 56절의 ‘탄식’ 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호흡’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영적인 호흡을 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이사야는 주님을 부르는 것을 그분께 외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

이니라”(사 12:2-6).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힘과 노래가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4절에 언급된 부르는 것과 연관됩니다.

구약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류의 제삼대인,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창 4:26).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창 12:8), 이삭(창 26:25), 모세(신 4:7), 욥(욥기 12:4), 야베스(대상 4:10), 삼손(삿 16:28), 사무엘(삼상 12:18), 다윗(삼하 22:4), 요나(욘 1:6), 엘리야(왕상 18:24), 예레미야(애 3:55)로 계속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는 것을 예언까지 했습니다(욘 2:32, 슥 3:9, 슥 13:9).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관한 요엘의 예언은 잘 알고 있지만, 부어진 성령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엘은 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예언했고, 다른 한 면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행 2:17상, 21). 하나님은 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불러 협력해야 합니다.

신약의 믿는 이들이 실행함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순절 때부터 신약의 믿는 이들이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행 2:21).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행 7:59). 신약의 믿는 이들은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했습니다(행 9:14, 22:16, 고전 1:2, 딤후 2:22). 다소 출신의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행 9:14). 이것은 초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요,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

는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을 부르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주님의 이름 부르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2-13)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고전 1:2). 그뿐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했습니다(딤후 2:22). 이 모든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매우 자주 실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부터 초대 교회 시대까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소홀히 해 온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여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롬 10:13). 물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다지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부를 때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13절). 시편 116편에서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 네 번이나 언급됩니다(2, 4, 13, 17절).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사 12:2-4).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주님을 불러 본 경험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주님을 불

러 본 적이 없고 주님 앞에서 외쳐 본 적이 없다면 참으로 주님을 풍성하게 누린 경험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 소리를 높여 부르라…”(사 12:4, 6). 그분 앞에서 외쳐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라고 한 번도 외쳐 보지 않았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 주 예수여! 당신은 참으로 좋습니다!”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여러분은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으로 충만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해방되고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목적은 고통(시 18:6, 118:5), 환난(시 50:15, 86:7, 81:7), 슬픔과 아픔(시 116:3-4)에서 구출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을 반대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어떤 환난이 닥치거나 병에 걸릴 때에는 주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환난이 없다면 주님을 부르는 것을 반대하고 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에는 아무도 주님을 부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히 부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공훈에 참여하는 길도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그분의 공훈을 더 누립니다(시 86:5). 주님을 부르는 또 다른 목적은 그 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행 2:17상, 21).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부름으로써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같은 장 6절에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와 같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영적 양식을 먹는 길은 주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길은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요하실 뿐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고전 15:45),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립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를 누림에 관한 책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말해 줍니다. 주님을 누리는 길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12:3, 1:2). 우리가 “주 예수여!” 하고 부를 때마다 그분은 영으로서 오시며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을 마십니다(12:13). 만약 내가 지금 실지로 살아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올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실지로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오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풍성을 가진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모든 풍성을 가진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에나 그분을 부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며 매우 풍성한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분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 자신을 분발시킬 수 있습니다.

부르는 법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순수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딤후 2:22).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야 하며 주님 자신 외의 어느 것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순수한 입술로 불러야 합니다(습 3:9).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부주의한 말보다 더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이 부주의한 말 때문에 더럽혀졌다면 주님을 부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입술과 함께 우리에게서 열린 입이 필요합니다(시 81:10).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 위해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여러 사람

과 함께 불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시편 88편 9절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매일 불러야 합니다. 또한 시편 116편 2절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기도하다’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분을 부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살아 있는 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실행의 필요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매시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 호흡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 특히 새로 믿는 분들은 주님을 부르는 실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을 알 수 있고, 부활의 능력 안으로 인도될 수 있고, 그분의 자연스런 구원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과 하나 되어 행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 실행할 때, 그것이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놀라운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5장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열쇠—사람의 영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골 2:6).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체험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미리 조금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체험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에 의해 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소책자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골 3:4)와 함께 매일 행하는 체험 안으로 믿는 이들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의 예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이 잠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열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체험하는 실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열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소책자의 목적은 그 열쇠를 밝혀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쇠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 열쇠를 사용하는지 안다면 우리 생명이신 부요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체험하는 비결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한’ 사람의 서로 구별되고 분리된 ‘세’ 부분입니다.

몸과 혼을 구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과 혼을 동일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 부분은 두 개의 접촉 조사에 의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의 구별을 보여 주는 또 다른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은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혼과 영이 쪼개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며, 이 둘은 틀림없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세 개의 다른 세계, 곧 물질적인 세계와 심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세 개의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다른 영역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주 많은 물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의 오감인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몸의 오감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영으로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아닌 심리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거액의 돈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이 행복은 물질적인 세계에 속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 속합니까? 행복, 기쁨, 슬픔은 심리적인 세계에 속합니다. 심리학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사이칼러지 (psychology)’는 신약 성경에서 ‘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쉬케 (psyche)’에서 왔습니다. 심리학은 단순히 ‘혼의 연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슬픔과 기쁨이 있는 심리적인 세계, 곧 혼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개의 다른 세계—영적인 세계, 심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할 수 있도록 세 부분—영(속 12:1), 혼(렘 38:16), 몸(창 2:7)—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혼 또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감정입니다(신 14:26, 아 1:7, 마 26:38). 우리는 바로 이 감정으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혼의 또 다른 부분은 생각입니다(수 23:14, 시 139:14, 잠 19:2). 생각 안에는 사상과 고려와 개념과 관념이 있습니다. 혼의 셋째 부분은 의지인데(욘 7:15, 6:7, 대상 22:19), 우리는 그것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은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려하거나 시비를 따질 때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결정할 때 의지를 사용합니다. 생각, 의지, 감정은 바로 혼의 세 부분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사고하고, 의지로 결정하고, 감정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거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심리적인 세계를 접촉할 때 우리 존재의 심리적인 부분인 혼을 사용합니다. 원칙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을 접촉하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귀를 막고 그의 목소리를 보려고 애써 눈을 사용한다면, 그 소리가 실재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맞지 않는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청각 기관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동일한 원칙이 색깔을 구별하는 데 적용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파랑색, 초록색, 자주색, 빨간색 등 많은 아름다운 색깔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색깔을 들으려고 귀를 사용한다면 결코 그 아름다운 색깔을 누리지 못합니다. 실질은 있지만 여러분이 맞지 않는 기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어떤 기관을 사용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실질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와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

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째 ‘영(Spirit)’은 신성한 영,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둘째 ‘영(spirit)’은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영어에서는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나 혼으로 그분을 경배하거나 접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또한 우리의 영으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통해야 합니다.

이 두 영이 언급되어 있는 또 다른 구절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다시 태어났거나 거듭났음을 알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영(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영(사람의 영)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디에서 거듭났는지 말해 줍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도 혼 안에서도 아닌 영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날 이후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요 4:24, 롬 8:16, 딤후 4:22, 고전 6:17).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삼십삼 년 반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고전 15:45).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그리스도)는 영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인해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용기 곧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바로 사람의 영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구절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심을 분명히 밝혀 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함,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분께서 획득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은 이 생명 주시는 영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셔서 우리를 그분과 한 영으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고전 6:17).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돌이키는지 안다면'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몸 안에 육신의 생명과 혼 안에 사람의 생명, 곧 심리적인 생명만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들은 혼이나 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혼 안에서 살고 행하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지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자신인 또 다른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이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혼으로부터 영으로 돌이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혼 안에서 사람의 생명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 안에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어떤 곳에 가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운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이 두 영이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어려움의 실재를 체험하는 길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형제들은 자신의 몸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연습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익하지만, 어느 정도만 유익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원히, 현시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유익이 되는 또 다른 중

류의 운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종류의 운동, 곧 영의 훈련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훈련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 질문에 접근해 봅시다. 바울은 두 종류의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훈련은 신체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그것이 생각의 훈련, 곧 심리적이거나 혼적인 훈련이겠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과정에서 이런 종류의 훈련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사용하는지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나 잘 배워왔습니다. 신체와 생각의 훈련 외에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참으로 필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영의 훈련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과 혼에 의해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의해 행하고 있습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단순히 그들의 영을 사용하는 일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이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 혹은 물질적인 몸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대개 혼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말하고 논쟁하고 판단을 내리고 논의하고 토론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올 때나 주님을 접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올 때,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생각, 느낌, 원함)을 거절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혼의 기능을 사용해서는 그리스도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버리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우리 생명의 중심인 아담에 속한 부패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고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

리 존재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타고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그분과 교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고전 2:14). 이 구절의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혼적인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새로 출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요 3:6-7).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백 퍼센트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타락한 혼적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에 의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생명에 의해서 다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결코 혼 안에 있는 우리의 타락한 생명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생활의 근원으로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절하고 끝내야 할 것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혼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타고난 혼적인 생명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갈 2:20, 롬 6:6),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혼의 기능은 주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그 영에 의해 사용되는 기관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영 안에 어떤 확증이나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나 말을,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 없이, 멈추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라고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영 안에 있는가, 아니면 혼 안에 있는가?’ 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객관적인 주님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주님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연합된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몸과 혼의 차이를 알기는 쉽지만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다음의 예는 그 차이를 분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고 싶어했던 물건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 물건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을 갖고 싶다는 느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좋아했기 때문에 감정이 사용되었고, 그 물건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 사용되었고, 그것을 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의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혼 전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러 갈 때 우리 깊은 속에 있는 무언가가 반대하고 금지합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영은 우리 전 존재에서 가장 깊고 가장 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장 깊은 느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표적에서 빛나겠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른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이라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은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따라 행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문제는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가, 아니면 혼 안에서 살고 행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이 표적에서 빛나갔고 심지어 이 표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표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서 다만 영 안에 있는지 아니면 혼 안에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은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가 자아인가, 영인가 혼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생활과 매일의 행함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아를 부인하고 혼적인 생명과 함께 혼을 잃어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마 16:24-26, 막 8:35, 눅 9:23-25, 요 12:25). 그리고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행하고 살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행할 것을 거듭 말합니다(행 17:16, 롬 1:9, 롬 12:11, 고전 16:18, 벧전 3:4, 엡 6:18, 계 1:10).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영을 사용한다면 성령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흐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모두 우리의 영을 해방한다면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영을 숨 막히게 함으로써 전략상 가장 중요한 지점에 타격을 줍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을 숨 막히게 하는 한, 우리는 이길 길이 없게 되고 사탄은 쉽게 성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항상 우리의 영을 해방하는 실행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든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이 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혼 생명을 부인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영과 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과 동역할 때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서 으뜸의 지위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이고, 모든 것 가운데서 그분을 어떻게 적용하며 체험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주님의 두 중에 관하여

저희는 워치만 니와 그의 동역자 위트니스 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전한 말씀이 80년 이상 전세계, 육대주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 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저서는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저희에게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 이 두 형제님의 삶과 봉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워치만 니

워치만 니는 17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저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일하게 교회 생활의 실행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강조한 그의 사역의 또 다른 비중 있는 방면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에 관하여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를 열어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주님을 위해 20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주 예수의 충성스런 증인으로서 1972년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위트니스 리

위트니스 리는 위치만 니와 가장 가까웠고 깊은 신뢰를 받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1925년, 19세 때에 역동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고 자신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처음 7년 동안 그는 플리머스 형제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그는 위치만 니를 만났고, 그 이후로 1949년까지 17년 동안 중국에서 니 형제님의 동역자로 수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종의 사역과 일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부흥을 가져와 중국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49년 위치만 니는, 중국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의 모든 동역자들을 함께 모은 자리에서 위트니스 리에게 중국 대륙 밖의 대만 섬에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위임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백 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위트니스 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위트니스 리는 35년 이상 주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974년부터 1997년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수 년 동안의 수고의 열매로서 300권 이상의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를 열어 보여 주었고, 이것을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이 건축이 완성될 때 주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그분의 마음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님의 사역의 주된 특징은 그들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

라 진리를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위치만 나와 위트니스 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성경은 완전하고 신성한 계시로서 무오(無誤)하며, 하나님께서 호혜해 내신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2.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영—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3.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육체가 되셔서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이 되셨다.

4.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5.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삼 일 동안 매장되신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사십 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을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셨다.

7.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 오늘날 이 영은 이 땅에서 운행하시며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신다.

8.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9.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성한 축복에 영원토록 참여할 것이다.